



## 숲 속에 사는 나무, 동물, 식물과 친구가 되었어요~!!

### 푸른숲선도원의 숲속학교 1기~4기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푸른숲선도원의 숲' 에서, 총 4회에 걸쳐 9개교, 푸른숲선도원 477 명이 참가한 가운데 푸른숲선도원 숲속학교 1기~4기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푸른숲선도원의 숲은, 2006년부터 10년간 청소년들이 가꾸어갈 우리의 숲입니다.

물, 대기, 토양 등 주제별 학습장 등이 있는 1.1km정도의 숲길을 조성하여 숲가꾸기, 숲 속 이야기, 나무나이 알아보기, 토양생성과정 및 역할 등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가꿀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 분	일 시	학교명	인 원			
			합계	학생	교사	일반인
총 합 계		7개 학교	477	377	26	74
1기 (108명)	2006.09.28	용문초등학교	47	44	3	-
		동구초등학교	43	41	2	-
		봉사자·관련단체	18	-	-	18
2기 (92명)	2006.10.19	광주초등학교	15	14	1	-
		경안초등학교	55	54	1	-
		봉사자·관련단체	22	-	-	22
3기 (142명)	2006.11.09	장평초등학교	42	38	4	-
		동신초등학교	42	41	1	-
		태평초등학교	40	38	2	-
		봉사자·관련단체	18	-	-	18
4기 (135명)	2006.11.23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43	41	2	-
		이포고등학교	76	66	10	-
		봉사자·관련단체	16	-	-	16



## 1기\_ 오감을 열고 숲을 만나자!

1기에서는 “오감을 열고 숲을 만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푸른숲선도원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숲가꾸기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가지치기, 간벌 등을 통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임업체험의 숲과, 자연관찰의 숲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감체험을 통하여 숲을 보고 느끼며 숲을 이해하고 숲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인 자연관찰의 숲은 숲해설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숲 속을 직접 거닐어 보고, 자연을 느끼고 배우며, 오감을 통해 자연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숲 속 학교 체험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석해본 아이들은, 그 소중한 숲 속에서 느낀 것들을 마음속 깊이 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숲 속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소중히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양분을 주고 소중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 2기\_ 녹색댐... 우리의 미래!!

2기는 “녹색댐..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숲 속 학교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녹색댐의 정의와 취지를 알고, 녹색댐이 필요한 이유를 숲 속에서 직접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숲해설가 분들의 해설을 통해 오감뿐만 아니라 녹색댐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녹색댐에 대해 숲을 거닐며 숲 속에서 체험학습을 한 우리 푸른숲선도원들은 녹색댐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법을 자연관찰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한 명 한 명 가지치기 및 비오톱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겁게 학습을 받고 있는 푸른숲선도원들의 모습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무척 즐겁고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그루녹색회 사무국 식구들과 강사분들도 행사진행을 하며 많은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친구들이~숲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오늘의 체험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너희가 지키고 가꾸게 될 숲은 소중한 녹색댐으로, 우리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거야~~!”





## 3기\_ 알록달록 가을 숲

3기 숲속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알록달록 가을 숲”을 주제로 한 가을 숲을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 숲 가꾸기, 간벌, 비료주기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림과 임업에 관한 현장교육을 통하여 나무나이, 직경 등을 알아보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분들의 질문에 너도 나도 손들어서 대답하려고 하던 푸른숲선도원들의 자신감을 통해, 운영진으로써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베어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는 작업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숲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숲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위해 건강하지 못하거나 휘어져 난 나무 등은 베어주어서, 주변 나무가 더욱 건강한 숲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벤 나뭇가지들은 몇 군데씩 장소를 정해 듬성듬성 비오톱을 형성시켜서 숲 속에 사는 동·식물들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비오톱도 직접 만들어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호기심도 많았던 푸른숲선도원들이 참여했던 때가 3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4기\_ 숲의 겨울나기

4기 숲 속 학교는 “숲의 겨울나기”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기~3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4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 기수보다 심도 있게 숲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이포고등학교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가 참가한 이번 4기 프로그램에서는, 숲의 겨울나기를 주제로 숲해설을 듣고 숲 속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또, 숲 토양의 역할, 낙엽층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고, 직접 낙엽층을 위에서부터 서서히 걷어 가며 각각의 층을 구분해 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토양단면도 관찰하고, 우리나라 숲토양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